19일 광주시 서구 금호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유방암 자가진단' 순회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백일홍' 회원들로부터 자가검진 가슴모형을 활용한 유방암 자가진단방법을 배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암극복 '삶의 희망' 가졌습니다"

유방암 예방 힘쏟는 광주 건강지킴이 '백일홍'

"어느 날 갑자기 선고받은 유방암 진단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김모(여·45)씨는 19일 광주시 서구 금호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암 극복 홈 커밍데이'에서 자신이 유방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광주지역 건강지킴이 '백일홍' 회원들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였음을 역설했다.

환자들과 일대일 자매 결연

유방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임인 '백일홍' 회원들은 이처럼 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완치 경험담을 전해주며 삶의 희망과 의지를 불어넣고 있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유방암 예방과 자가 검진법을 소개하며 암을 사전에 막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회원 300명 중 대다수는 주부들이지만 전·현직 교사·교수·행정공무원·기업가 등도 있다. 연령층도 30대에서 60대까지 폭넓다.

이들 중엔 암이 재발해 네 차례나 수술을 받은 이도 있고, 20년 전 수술을 받은 뒤 병세가 악화돼 재수술을 받은 여성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투병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병마(病魔)와 싸워 이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9년 11월 전남대 병원이 마련한 유방암 수술 환자 재활프로그램이 '백일홍'의 결성 계기가 됐다. 당시 참여자 16명은 수술 후유증을 막기 위해 병원 측에서 마련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받던 중이었다. 여성으로서 감당해내기 힘들 만큼 심적 고통이 컸던 이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어떤 약보다 든든한 위로와 격려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암을 함께 이겨낸 것이다.

완치 후에도 자주 모임을 갖던 이들은 암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2000년 1월 초 지역 내 유방암 환자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는 '건강지킴이 모임'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매년 네 차례씩 광주지역 병원을 찾아 암 환자를 위한 '암 극복 홈 커밍데이'를 연데 이어 일 대 일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회원들은 현재 서구청 주최로 진행 중인 '유방 자가검진' 무료 순회교육 봉사활동도 펴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순회교육은 6월 3일까지 18개 동(洞) 주민센터에서 매주 두 차례씩 열린다. 이 때문에 연간 순회 교육 계획표의 빈 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일정이 빼곡히 짜여 있다.

완치 경험담 들려주며 후원·격려

이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대당 180만원인 자가검진 가슴모형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만큼 형편이 넉넉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전남대병원의 도움을 받아 가슴모형 등의 장비를 빌려다 강의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성자(가명·여·50) '백일홍' 총무는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병마와 싸운 뒤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며 "순회교육을 받은 뒤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거나 회원들의 도움을 통해 암을 극복한 여성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홍빈의 끝없는 도전

〈열손가락 없는 산악인〉

이번엔 안나푸르나·다울라기리 원정

오늘 순천서 발대식

〈김홍빈 대장〉

새해 벽두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4,897m) 정상에 올라 양손이 없는 장애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완등의 쾌거를 이뤄낸 김홍빈(46·송원대산악회 OB) 대장이 안나푸르나(8,091m), 다울라기리(8,167m)봉 연속 등정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다음 목표인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겠다는 각오다.

김씨가 원정대장을 맡은 '2009 희망만들기 안나푸르나·다울라기리 원정대'는 오는 24일 오후 9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번 원정에서 그는 마칼루 등을 함께 등정한 밍마 덴지(Mingma Tenji) 셀파와 한 조를 이뤘다. 원정대는 카트만두를 거쳐 네팔 중부 안나푸르나 산군 4,200m지점에 베이스 캠프와 3개의 전진 캠프를 설치한 뒤 다음달 중순 정상 공격을 시도한다.

이어 인접한 다울라기리 베이스 캠프(4,700m)로 이동, 역시 3개의 캠프를 차례로 구축한 뒤 5월 중순까지 등정에 나선다. 등반 루트는 안나푸르나의 경우 북릉, 다울라기리는 북동릉을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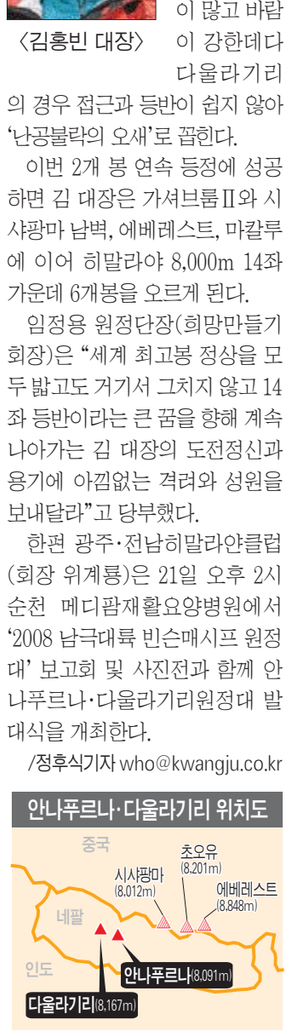
네팔 히말라야산맥 중북부에 위치한 안나푸르나와 다울라기리는 고대 티벳과의 교통로였던 칼리간다키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높이로는 각각 세계 10위, 7위봉에 해당한다. 특히 다른 8,000m봉 에 비해 적설량이 많고 바람이 강한데다 다울라기리의 경우 접근과 등반이 쉽지 않아 '난공불락의 오새'로 꼽힌다.

이번 2개 봉 연속 등정에 성공하면 김 대장은 가셔브룸Ⅱ와 시샤팡마 남벽, 에베레스트, 마칼루에 이어 히말라야 8,000m 14좌 가운데 6개봉을 오르게 된다.

임정용 원정단장(희망만들기 회장)은 "세계 최고봉 정상을 모두 밟고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14좌 등반이라는 큰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김 대장의 도전정신과 용기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히말라얀클럽(회장 위계룡)은 21일 오후 2시 순천 메디팜재활요양병원에서 '2008 남극대륙 빈슨매시프 원정대' 보고회 및 사진전과 함께 안나푸르나·다울라기리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조합장 선거 또 금품

전남도선관위 3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영암 미암농협과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적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20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미암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A씨와 조합원 B씨는 조합원 등 12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일로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는 지난 6일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화장품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로농협은 오는 24일, 미암농협은 6월23일 각각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밀입국 중국인 등 9명 영장

목포해양경찰은 20일 국내 어선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7명과 이들을 실어 나른 선원 2명 등 9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은 지난 19일 오후 6시10분께 신안군 자은도 북서방 4㎞ 해상에서 목포선적 10t급 연안자망어선 3갑성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는 7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추방하기로 했다.

또 선장 정모(53)씨와 선원 김모(43)씨 등 목포지역 선원 2명은 중국 대련항에서 출항한 중국 선박으로부터 밀입국자들을 인계받아 국내로 실어 나른 혐의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교원성과급 최대 98만원 격차

내달 30~50% 범위 차등 지급 결정

전교조 "균등분배" 주장…갈등 우려

다음달 초중고 교원들에게 최대 98만원의 격차가 나는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로 대응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직접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5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차등 지급률이 최대 20%P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그간 차등 지급률은 2002~2005년 10%, 2006~2007년 20%, 지난해 30%로 조금씩 확대됐다.

차등 비율이 50%일 경우 A등급(상위 30%. 340만7천110원)과 C등급(하위 30%. 242만5천640원)의 차액은 최고 98만1천470원에 달한다.

일선 학교의 차등 지급률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차등 비율을 놓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차등 지급률을 가장 낮은 30%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에 대해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성과상여금 중에서 50억원을 모아 사회적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해 양측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 5개구청-숙명여대 "호남 여성인재 육성" 2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호남지역 여성인재 육성 선언식'에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과 광주지역 5개 구청장 등이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자체가 우수학생을 추천하면 지역핵심인재전형을 통해 전체 입학정원의 10%인 230명을 선발, 지역 리더로 양성할 방침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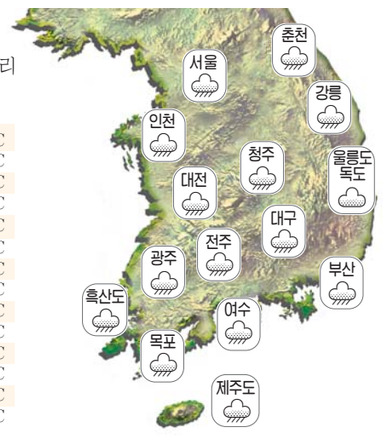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5분 해짐 18시 45분 달뜸 03시 26분 달짐 13시 29분

나들이 시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비	8/21℃
목 포	흐리고 비	8/17℃
여 수	흐리고 비	10/15℃
완 도	흐리고 비	9/18℃
구 례	흐리고 비	5/19℃
해 남	흐리고 비	7/18℃
장 흥	흐리고 비	8/18℃
고 흥	흐리고 비	8/18℃
순 천	흐리고 비	8/17℃
영 광	흐리고 비	8/19℃
진 도	흐리고 비	9/18℃
전 주	흐리고 비	7/22℃
남 원	흐리고 비	5/22℃
흑산도	흐리고 비	6/13℃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서	1.0~2.5m
먼바다	남동~서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서	1.0~3.0m
먼바다	남동~서	1.0~3.0m

	밀물	썰물
목포	10:31 22:22	03:25 16:46
여수	06:08 18:10	12:35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날 씨						
최저/최고	13/15	5/14	2/12	0/8	1/11	2/12

광주·전남 오늘 봄비

이상고온현상 '주춤'

주말 광주·전남지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1일 광주·전남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20일 예보했다. 강우량은 여수와 완도 등 남해안 지방은 30~60㎜,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지역은 20~40㎜가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0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21일 밤 여수와 완도에 강풍주의보를, 남해서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릴 예정이다.

휴일인 22일 오전에 비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13~15도로 예상되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2일부터 아침과 낮 모두 평년기온(2~13도)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최우선 인권 보호대상은 장애인·이주여성"

광주·전남 지방의원 73% "인권조례 필요"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지방의원 10명중 7명 이상은 지역 차원의 인권조례가 제정돼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최우선 인권보호 대상으로 장애인과 이주여성 등을 꼽았다.

20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 전남·북, 제주 등 지방의원 6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가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와 '모르겠다'는 각각 9.2%, 13.5%에 그쳐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조례가 필요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이란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27.5%) ▲'이주노동자'(23.5%) ▲'학생'(5.9%) ▲'노인'(4.9%) 등의 순이었다.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합할 경우 전체 응답자 2명중 1명 이상은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들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들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가 '검찰·경찰'을 꼽았고, 이어 '요양원·복지원 등 복지시설'(20.9%), '교도소 등 구금시설'(16.4%), '군대'(13.4%)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권 저축은행서 수백억 대출 알선

한국銀 출신 브로커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대출 알선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국은행 전 과장 유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인 2005~2006년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 씨에게 부탁해 중소기업 세 곳에 657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1억5천만 원과 20억 원 상당의 사업 지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유 씨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했고 전남권 최대 상호저축은행이었던 H저축은행은 결국 2007년 3월 부실 대출이 쌓여 6개월간 영업정지된 뒤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 성인오락실서 강도짓

쌍나팔

○…현직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성인오락실 단속을 가장한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

○…인천남동경찰은 20일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빼앗은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40)경사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들어가 "단속나왔다"며 환전상 B(39)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현금 26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A경사는 범행 당일 동료 경찰관에게 "김밥을 사오겠다"며 근무복장을 입은 채로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두 차례나 수사 상황을 묻었다가 범행 일체가 들통. /연합뉴스